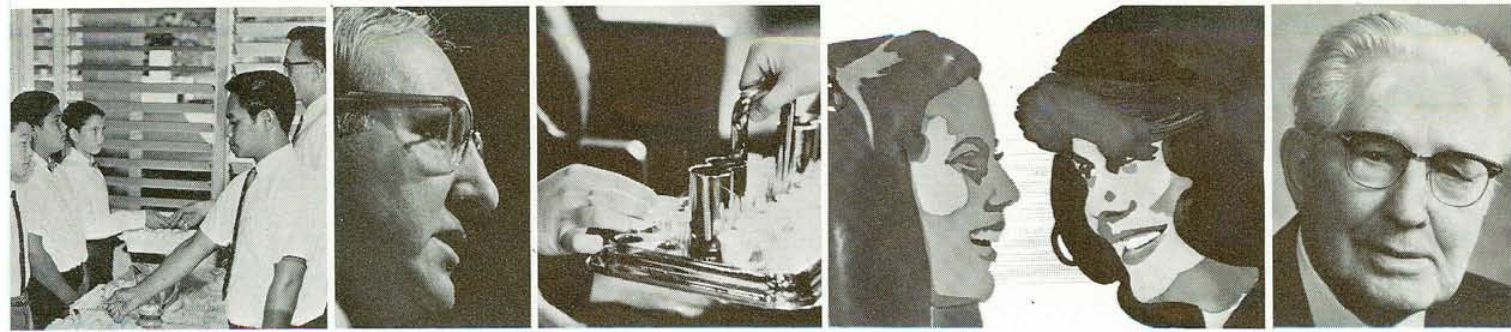


성도의 벗 6

1976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츠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6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2권 제6호

통권 131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성도의 벗

1976년 6월호

순서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 1 개종자의 교회 스펜서 더블류 김볼
- 7 별이 쏟아지는 밤 코리나 엔 베이스
- 8 교회로부터 두 시간
- 9 휴비 브라운 장로
- 12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 22 교회 복지 사업 개관 빅터 엘 브라운
- 25 복지 생산 배부과 에이치 버크 피터슨
- 49 개발 복지 사업과 본 제이 페더스토운

청소년 페이지

- 3 성찬 성약 멜빈 조셉 발라드
- 21 시작이 반이다 패티 윌트뱅크

어린이 페이지

- 13 노동을 강조하는 복음 닐 에이 맥스웰
- 15 빵 빚어 만들기
- 16 모든 사람의 꽃밭 루시 파
- 18 아빠 처럼 제이 버튼
- 20 심심풀이

© 1976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종자의 교회



나는 교회의 성인 회원들에게 있어서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은 우리의 생활, 가정, 결혼 생활, 자녀, 교회의 부름과 활동 등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교회의 집회와 반 모임은 복음의 교리와 원칙에 대한 더욱 강한 이해의 영과 간증의 영으로 넘치게 됩니다.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영원한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고 부동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이 귀중한 목표를 열심히 추구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이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준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리는 우리에게 상상 외의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지혜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게 되며, 비회원인 친구들에게 빛과 힘의 근원으로 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나는 청소년 시절에 초기의 사도들과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집사가 되기 전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곧잘 다락방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꾸며 놓지도 않은 칩칠한 다락방에서 석유 등잔을 켜놓고 밤마다 성경을 읽

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선택된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신앙과 지식과 고결함과 인간적인 동정과 이해를 지닌 그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지도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초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느날 신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행 3:1-7 참조)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말은 누구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눌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더욱 훌륭하고 충만하게 하며, 모든 결혼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게 하며 모든 가정을 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신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

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정원회와 학습 모임과 교회의 활동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비회원인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바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항상 나에게 큰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땅, 즉 구브로나 오늘날 터어키, 그리스, 이탈리아로 알려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읽고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9).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나 사람의 영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널리 전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와서 도와주십시오”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 친구, 친척, 또는 바로 어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얻고 베드로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행 4:29)

베드로의 성역과 스테반과 빌립에 관해서, 그리고 바나바의 훌륭한 역사와 바울의 용감한 활동에 관해서 읽을 때마다 나는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되고 또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훌륭한 성도들처럼 언제나 복음 전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의 교훈을 즐겨 읽었으며 그들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갔음을 알았습니다.

초기 교회에 우정과 형제애가 싹터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원한 복지와 신체적 안녕에 대해 서로 염려했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과 같이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초기 교회의 회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을 느껴 왔습니다. 초기 교회는 새로운 회원들의 교회였습니다. 모두 개종자였습니다. 1년, 10년, 20년 된 회원들이 모두 서로 사랑과 우정의 유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행 2:9-11) 모두가 서로 사랑과 형제애로 일하고 시기와 질투가 없었으며 신분과 학식과 국적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겐세마네에 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 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종자로 넘칠 것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이거나 상파울루이거나 로스앤젤레스이거나, 런던이거나, 도쿄이거나, 이탈리아의 투리노이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의 노력을 통해 새로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형제 자매 개종자들이 항상 있도록 한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바울의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형제애의 정신과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도망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개종시키고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주인과 종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종 오네시모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치고 주인 빌레몬에게는 종을 주인과 동등한 정도로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가르치고자 했다. “간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겠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제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빌 10-12, 15-18, 20-21)

이 위대한 선교사인 예수의 사도가 가르친 형제애의 정신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인에게 그의 습관을 취하는 습관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습관을 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전 8장 참조)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매일 주님의 왕국에 들어 오는 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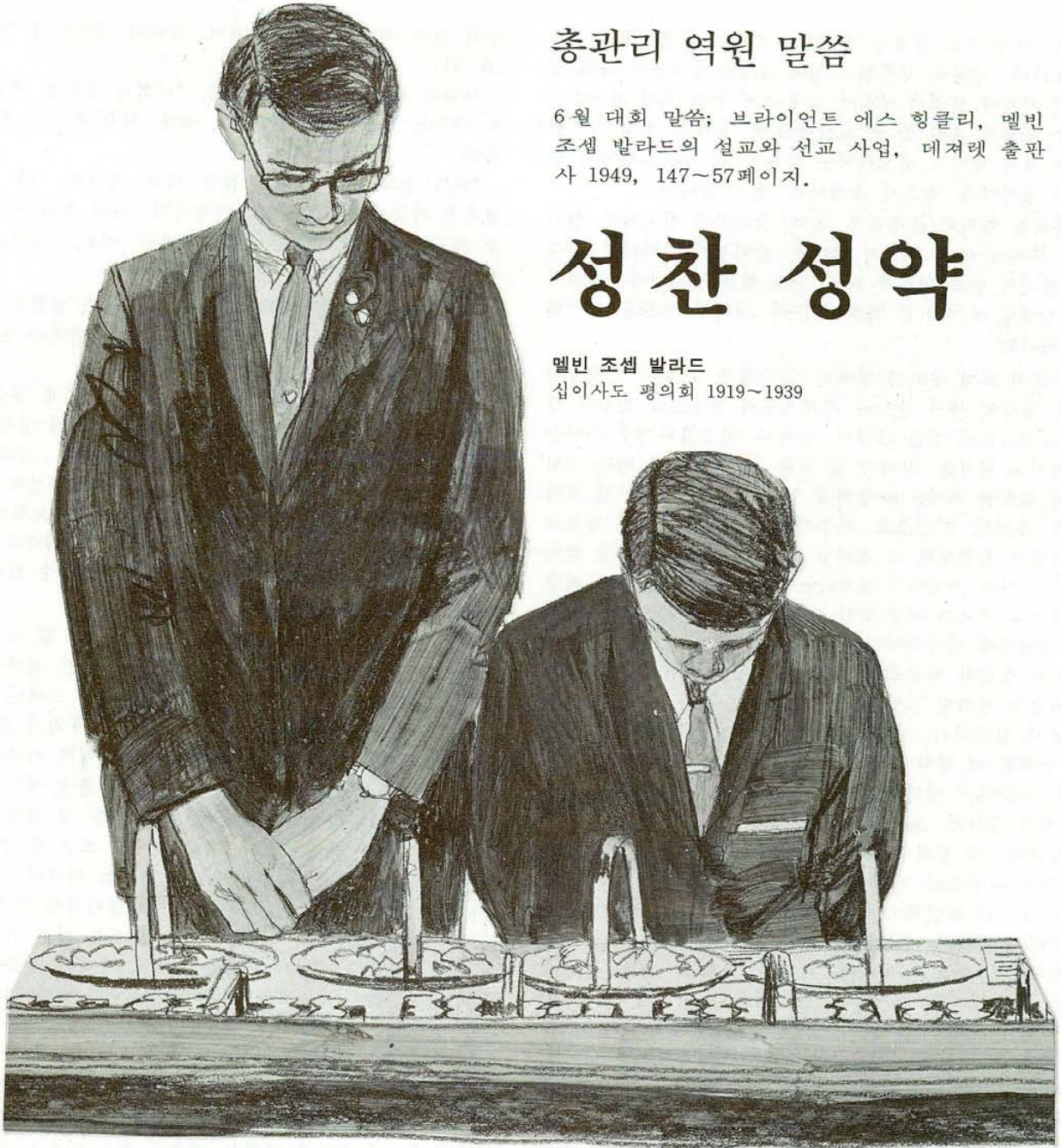
서로 서로 그리고 새로이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끊임없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과 우정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총관리 역원 말씀

6월 대회 말씀;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멜빈 조셉 발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데저렛 출판사 1949, 147~57페이지.

성찬 성약

멜빈 조셉 발라드
십이사도 평의회 1919~1939



“우리는 성찬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룩합니다.” 주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의 상징물을 성결케 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성찬의 성약과 그에 수반되는 축복은 주님께서 직접 말일성도에게 계시로 주신 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성찬 성약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신성한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가 맺은 성약의 신성함을 믿고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 상징물을 취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그의 아들을 기억함을 증거하고, 떡과 물을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주 함께 모여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이 축복된 특권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보람있는 기회는 드뭅니다. 우리는 육신에 활력을 주기 위해 음식을 취합니다.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쇠약해져서 병을 앓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취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만일 육신의 양식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해 준다면 누구나 모여들 것입니다. 전시에는 많은 공동 사회에서 식권이나 배급 통

장을 나누어주고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배급했습니다. 전시에 부족한 식량과 설탕을 배급받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느낀다면 교회의 성찬식에 반드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을 느껴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면 잔치집에 가더라도 음식이 당기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의에 굶주려 영적인 성장을 갈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로나 생각로나 행동으로 자신의 영을 손상시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을 늘 저지르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용서받기 원한다면 그 용서를 받는 방법은 재침례를 받는 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여 합당한 태도를 갖게 되면 성찬을 취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찬을 집행할 때 영이 함께 하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영육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상처가 고쳐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진실로 취하고 싶어하는 합당한 영혼은 위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일마다 성찬식에 참석하여 상징물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축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상징물을 취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년 소녀, 형제 자매들이 성찬식에 와서 상징물을 먹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합당히 먹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몇 개의 성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합당하게 성찬을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화가 될 것이라는 성구를 이미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원은 성찬을 취하기에 앞서……주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며 경전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실과 신앙이 있어 회원되기에 합당함을 경건한 생활과 말로써 교회 회원이나 장로 앞에 나타내야 하느니라.”(교성 20 : 68—69)

바울도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곁하여 참례치 못하리라.”(고전 10 : 21)

다음과 같은 성구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십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거든 저를 금하되.”(니삼 18 : 28—29)

또한 말일의 예언자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있으면 화해하기 전에는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교성 46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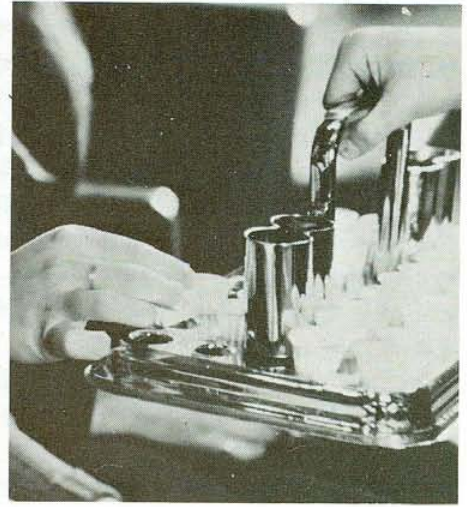
우리들 중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실까 두려워 성찬식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일성도가 성찬식에 참석하여 스스로 반성해 보고 각자의 생활을 바르고 합당하게 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손을 뻗쳐 상징물을 취하려 할 때 교회의 장로들이 “당신은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는 성찬을 취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배웠다면, 죄나 잘못을 범하고서는, 혹은 형제 자매에 대하여 상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취할 특권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배도를 하는 것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도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매 주 성찬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안에 교회를 멀리 떠날 수는 없습니다. 즉 반성의 과정을 거처도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상징물을 취함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성찬 취하기를 삼가한다면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며 곧 회개의 영이 함께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찬식에서의 길은 말일성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찬식 참석을 게을리 하는 이유는 성찬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 교회에 영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마련하신 신성한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현세에서 과연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아무도 줄 수 없고 주님만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된 이 성찬 의식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는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돌아가시게 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훌륭한



한 작가의 말을 기억합니다. 즉, “악마의 매점에서는 물건이 모두 팔린다. 한 근의 쇠찌꺼기를 한 근의 금을 받고 판다.”(제이 알 로웰, “문필 경의 비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 나라 뿐이며, 구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와 회생의 대가로 아무 것도 치루지 않지만 값을 치루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치루신 값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치루신 값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린 끝에 얻게 된 아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던 중 그는 이 유일한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응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마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로 사랑하지 않을런지도 모르지만, 그와 아들이 어머니인 사라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장소까지 3일간 여행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슬픔을 감추는 것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제물을 불 사를 나뭇단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3일간 걸어서 지정된 곳까지 왔습니다. 동행자들은 산기슭에 남겨 두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불사를 나뭇단은 있지만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제물을 잊고 안가져 왔어요, 아버지.”하고 친진난만한 아들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가련한 아버지는 “주께서 마련해 주실거야.”하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돌단을 쌓아 놓고 그 위에 나뭇단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삭의 손발을 묶어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축복과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그 고뇌의 시간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칼을 빼어 들어 아들의 피를 흘리기 위해 내려 치려는 순간 주님의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일을 그 이상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세계에서 세세토록 충실하고 참되었으며 신뢰와 영광 중에서 계셨으며 아버지는 그를 매우 사랑하셨으나 수백만이 흠모하는 영광의 자리로부터 지상으로 내려 보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는 모욕과 비난과 가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커다란 슬픔과 고통의 순간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팜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곤란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옆에 서서 듣고도 방관하겠습니까? 수영을 조금도 못하는 어머니가 떠내려 가는 자식을 구하려고 격류에 뛰어들던가 자식을 불에서 구하기 위하여 불붙는 집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은 누구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소리를 아무 느낌없이 서서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으며, 우리는 운명에 순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할 권세를 갖고 계셨으며 그의 아들을 사랑했고 구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모욕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구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두 도적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셨으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비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십자가를 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다가 무거워서 지친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몸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과 창에 찔려 살이 찢기고 생명의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에는, 칼은 멈추어지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의 피가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고 낙담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장막 위에서 이 죽음의 투쟁을 지켜 보시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견디시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녀에게 작별을 고하는 어머니가 방을 나와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투쟁을 안 보시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우주의 어느 부분에 숨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는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사랑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 보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없이는, 그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대로 남아 영화롭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선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가로 주신 것을 알기만 한다면, 또한 내가 그 아들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생활을 받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성찬식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존중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주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시하거나 잊거나 경시하는 것을 질투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서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성찬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 주 성약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찬과 함께 혹은 성찬을 통해 오는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

다.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희생과 속죄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돌아가심,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에 대한 간증을 얻었던 2년전의 경험이 회상됩니다. 나는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밤 소년 소녀 여러분에게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며 인간은 그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트 팩 레저베이션(인디안 보호지역)에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인디안들 가운데에서 선교사로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간증을 얻으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어느날, 성스러운 신전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동안 기도하고 기뻐하던 중 어느 방으로 들어가 영광을 지니신 분을 만나 보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 가니 지극히 큰 영광을 지니셨고 영원한 세계에 계시리라고 생각했던 한 분이 높은 단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다가 가자 그분은 일어 서서더니 팔을 벌리시며 나를 향해 걸어 오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며, 나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백만년 동안 산다 해도 그 미소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힘껏 가슴에 끌어 안으시며 입을 맞추시고는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끝수까지 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나는 그의 발아래 엎드려 눈물과 입맞춤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나는 구세주의 발에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니신 그분의 앞에서 내가 경험한 느낌, 그리고 내가 미리 조금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특권입니다. 내가 그를 믿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들며 그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 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아버지와 인간 앞에서 증거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와 변명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그 당시 느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년 소녀에게 위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려면 그들을 성찬식에 참석시키고 우리도 참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지도 않으며 손에 못이 박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팔을 벌려 미소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우리는 지정된 시간에 그에게 가야 하겠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참석하여 충만한 신앙을 통해 이 신성하고 거룩한 의식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현세에서와 영원에서 우리의 것인 모든 축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몰몬 일지

별이 쏟아지는 밤

코리나 앤 베이스, 아르헨티나

나는 어렸을 적에 주님에 대한 깊고 참다운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은 부모님같이 실제로 계신 분으로 느껴졌으며, 성탄절은 뜻깊고 아름다운 절기였다. 12월에 들어서면 나는 영광으로 가득찬 밤하늘에서 “크리스마스 별”을 찾았다. 밤에 밖으로 나가 거닐며 남반구의 여름 밤하늘을 살펴 보면 볼 수록 별들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 마음은 경이롭게 탄생한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벅찼다.

그러나 14살 때에는 주님에 관한 모순점에 의문을 느껴 하나님에 관해 세속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 밤즈와 흄, 성 어거스틴, 니체, 쇼펜하우어, 그리고 합리주의자인 데카르트, 등을 읽고 무신론자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하나님이란 인간이 공포와 불가사의로 가득찬 세상에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창조한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 대신에 물리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물리학이야말로 궁극적인 학문이며 결국 인류의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미심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함께 놀던 소꿉 친구에게 내가 창조에 관해 가졌던 거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논리적 해답을 얻었는데 한 가지 하

잖은 사실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의문이라는 것은: 생명의 불꽃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무엇이 그 불꽃에 불을 붙였는가?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하신거야. 그를 부정할 이유를 너는 수천 가지나 들 수 있지만 바로 이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막혀 버리고 말게 되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말을 무시해 버렸다.

그 후 어느날 “두 미국인”이 브리티쉬 인스티튜트에서 “회화”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서 들었다. 호기심에서 가보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선교사들이야말로 유치하고 무식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에는 계속 출석했다. 그들을 끌려주기 위해서였다.

얼마 후 그들은 회화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향회” 파티에 초대했다. 호기심에서 참석했다. 그러나 모두가 술과 담배가 없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 빠져 나왔다. 결국 다시 참석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그들의 계획에 완전히 열중하게 되었다. 지부 회원을 위한 개인 카드를 그리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위한 시를 썼으며 의상을 만들고 그리스도 탄생을 주제로 한 연극의 무대 배경을 그렸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당황했고, 언니는 화를 냈으며, 어머니는 낙심했다.

그리고 종내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을 맡게 되었다.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낡은 인형을 팔에 안고 선 나는 어느때 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들었으며 가슴 속에 전에 느껴 보지 못했던 강한 감명을 받았다. 머리를 돌려 내가 그린 창문의 밖을 내다 보면 틀림없이 별이 보이고 베들레헴의 언덕이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조차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그날밤 교회 문을 나서 걸어 가면서 별들이 매우 가깝게 느껴져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았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지적인 면에서 나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중단할 수 없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불문경을 읽고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2년후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대의 아버지께서……그대가 그와 함께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셨노라……그러므로 그대가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내 의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모든 위엄과 권세 가운데에서 살아 계시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곳에 인도해 주시느” 손은 지금은 킬메스 스테이크의 일부가 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교부 킬메스 지부의 조그만 무대에서 고집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손임을 알게 되었다.

*



머리를 돌려 내가 그린 창문의 밖을 내다 보면 틀림없이 별이 보이고 베들레헴의 언덕이 보일 것 같았다.

교회로부터 두시간

사치코 호타

일본 나고야 선교부, 나고야 제1지부 회원

남편과 내가 결혼하기 전,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교회에 봉사하는데 사용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곧 판명되었다.

결혼한 후 우리는 교회에서 매우 먼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로 교회가 있는 도시까지 온 다음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는데 포함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로 교회가 있는 도시까지 온 다음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는데 포함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기차를 하나 놓치고 다음 기차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걸렸다. 이러한 관계로 지부장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은 몹시 앓아 입원하게 되어 내가 일을 해야만 했다. 매일 일이 끝난 후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가 보고 다시 교회에 가고자 했으나 낮에는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 교회 직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근처의 땅은 매우 비쌌으며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세를 얻을 돈도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다. 그러나 경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즉 “네가 항상 기도하므로 내가 들어주노라”(눅 18:1-5 참조) 그러므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기도만 했다.

얼마 안되어 교회로부터 13분 걸리는 곳에 살던 삼촌이 갑자기 이사가기로 결정되어 그의 훌륭한 집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이 무렵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함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사한 후 교회는 나고야에 교회 건물을 세울 계획을 발표했고 모든 회원은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이 발표가 있기 직전 남편은 제과점을 경영하기 시작하여 자금이 부족했다. 저축해 놓았던 돈은 모두 사업에 들어갔다. 생활은 나의 월급으로 겨우 이어 나갔다. 건축 기금을 낼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임신까지 하여 나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의 사업은 진전되었으나 생활을 하고 건축 기금을 내고 아기를 위해 준비할 돈이 부족했다. 나는 상여금을 받을 때까지 일하여 이를 아기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해 두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어느날 저녁 지부장이 우리를 방문하여 건축 기금이 약간 부족하니 도와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우리에게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마련해 놓은 돈 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 돈을 지부장에게 가지고 갔다. 교회의 새 건물을 지을 건축 기금의 전액이 이렇게 하여 마련되었다.

우리는 아기를 위한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곧 평안함을 되찾곤 하였다.

다음 달 남편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직업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직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남편의 월급은 아기의 출산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다음,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휴 비 브라운 장로

1883-1975



에드윈 브라운 퍼메지 박사

“휴 비 브라운과 같은 분들은 우연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운명의 자녀입니다.”라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지난 1975년 12월 5일 브라운 장로의 장례식 조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신 휴 비 브라운 장로는 지난 12월 2일 화요일 말일성도 병원에서 숙환으로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브라운 장로의 조카인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휴 비 브라운 삼촌 만큼 저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분은 없습니다…… 저에게 항상 사려깊은 인도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결혼하시기 전 부모님 밑에서 충실하고 헌신적인 아들로 생활

하시던 때부터 그분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후 사랑하는 남편이며 아버지가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브라운 장로가 영국에서 선교부를 관리하던 때, 그의 밑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현재 십이사도 평의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말씀은 힘차고 간명했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언제나 합당하고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세련되었지만 엄격하지는 않았고, 확고했으나 친절했으며, 용감했던 한편 높은 유모어 감각을 지녔으며 언제나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장로는 성신의 도움을 힘입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으며, 일생 동안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 그가 17세였던 1900년, 카드스톤에 살던 때의 일이었다. 그의 집에서 열린 결혼 파

티에 “작은 지니”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12세의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왔었다. 브라운 형제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녀는 조그만 소녀였다. 금발의 곱슬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녀가 수줍은 듯이 어머니의 곁에 서서 시를 낭송했을 때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돌아 보며 말했다. ‘나중에 저 소녀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라!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고 어머니는 대답하셨다.” 그는 그 후 지나 카드를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후 그의 선교사 생활이 끝난 후에야 그녀에게 말을 꺼냈다.

그가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다시 한 번 흥미롭고 강한 성신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유럽 선교부장은

브라운 장로를 케임브리지 대학 도시인 노르위치 칸퍼런스에서 일하도록 지명했다. 목도들이 장로들을 모두 쫓아 내어 브라운 장로는 그곳으로 이동 받은 다음날 부터는 동반자도 없이 일하게 되었다. 며칠간 전도를 해봤으나 성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더우기 캐나다에서 온 어리고 경험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목동을 케임브리지에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잘못된 일이라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낙담하여 하숙집에 돌아 왔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시하여 열 여섯 가정의 영국 교회가 참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어 일주일 전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새로운 목자를 보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브라운 장로가 전해준 소책자를 발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내일 저희 집에 찾아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운 장로는 이를 받아 들였으나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였으므로 당황했다. 선교 지역에서 모임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신다는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즉시 하루 밤과 하루 낮을 금식하고 기도했다. 모임 시간이 마침내 다가 오자, 그는 “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찬송가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부른 다음 다같이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기도를 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자 모든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맡아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브라운 장로는 “주께서 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갖고 45분간 이야기를 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진리를 함께 나누었다고 간증했다. 3개

월 후에는 그날 밤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브라운 장로가 선교사 생활을 하던 중 깊은 감명을 받은 또다른 경험을 소개한다. 브라운 장로가 심한 병을 앓게 되어 선교사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랜트 선교부장은 그의 치료를 위하여 명예 귀환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때 그는 그랜트 선교부장의 축복을 받으면 건강하게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마칠 수 있다고 힘있게 말했다. 그랜트 선교부장이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하자 곧 병이 치유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선교사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그때 이후 브라운 장로는 히버 제이 그랜트 선교부장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그를 존경하였으며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집에 돌아오자 브라운 장로는 그가 사랑한 소녀가 다른 사람과 약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앨버타 스테이크의 이 제이 우드 부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그는 “지나 카드는 여자 중에 보석같은 존재입니다. 솔트레이크에서 열리는 4월 대회에 가서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약혼을 취소하고 당신과 결혼하게 되리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의 말대로 했고 4월 대회에서 돌아 올 때 그들간에 아무런 약속도 없었으나 이듬해인 1908년에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인도로 결혼식을 가졌다.

브라운 형제의 생애는 용기와 결단과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역량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그의 이러한 성품을 인정하고 1912년 캐나다 예비군 말일성도 분견대를 조직하기 위한 군사 예비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불러 켈거리로 가게 했다.

물론은 충성스럽지 않으며 유럽 전쟁이 일어날 경우 모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오타와의 국회에 들

어와 있었다. 앨버타의 레드브리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물론은 충성스럽긴 하지만 자치적으로 인도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우드 부장은 휴 비브라운을 비롯한 네 명을 불러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게 했다. 그는 주1회 씩 3년간 훈련을 받아 소령까지 진급했다. 이 장교들은 카드스톤에 기갑 대대를 조직하고 켈거리에서 기갑 훈련을 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4명의 물론 장교들과 함께 해외에 파견할 기갑 대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부대는 1915년 제13 해외 기마 소총대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켈거리와 메더슨 해트에서 훈련을 받은 후 1916년에 리버풀에 상륙했다.

리버풀로 가던 중 캐나다의 페타워위에서 물론 기갑 대대가 속해 있던 분견대의 1500명의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황급히 집합한 장교들은 이를 진압시키기 위해 즉시 군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이에 반대를 표시하고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폭도들에게 걸어 갔다. 그리고 근처의 텐트에서 책상을 꺼내어 그 위에 올라서서 거의 2시간 동안 그들과 이야기했다.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완전한 하극상과 살륙 행위가 일어날 태세에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폭도들은 설복을 당하여 텐트로 돌아갔고 군사 재판의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압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브라운 형제는 돌아와 법률을 공부했다. 공부를 마치고 견습 기간을 거쳐 1921년 변호사가 되었다. 후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하여 그레나잇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브라운 장로는 1937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으로부터 영국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수행하는 동안 그의 군사 및 법률 지식은 큰 힘이 되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로부터 선교사들을 후송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다. 그 후 그는 캐나다 앨버타에 있는 석유 개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교회의 부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동안 진 빚을 갚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의 사업은 순조로웠지만 브라운 형제의 생애에서 아마도 가장 저조한 시기는 이때였을 것이다. 그의 가족은 모두 건강했지만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

“1953년 10월 나는 유정 시추를 감독하기 위해 커네이디언 록키에 올라가 있었다. 가족은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했고 사업도 잘 되었지만 나는 깊은 우울증과 근심에 빠져 있었다. 어느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했다. 석유 사업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와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사업을 그만 두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밤 나는 록키 마운틴 하우스에 있는 캠프에서 에드몬톤에 있는 집으로 차를 몰고 내려왔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했다. 그날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혼자 침실로 들어갔다. 아내에게는 내가 잠을 못자 그

녀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다른 방에서 자라고 일렀다. 밤새도록 나는 악령과 싸웠다. 나는 죽기를 바랄 정도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자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방은 어둠과 악령으로 가득 차 나는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새벽 3시경 내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아내가 들어왔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물었다.

‘여보 방에 있는 게 뭐죠?’ 나는 대답했다. ‘사탄이요’ 우리는 남은 밤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보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가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악령으로부터 구해 달라 기도했다. (토요일이었으므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영적으로 평화로움을 느껴 아내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날밤 10시경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전화예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입니다. 주님은 형제님께서 교회를 위해 여생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스테이너 리차즈 형제님의 별세로 생긴 공석을 형제님께서 충원하실 것을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지지하였습니다. 형제님은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밤은 아내와 내가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새웠지만 이날 밤은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밤을 세웠다.”

브라운 형제가 악령과 싸운 후 부름을 받은 것은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받기 전 싸웠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싸움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생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던 브라운 장로는 1958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1951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을 받

아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및 헨리 모일 부대관장과 함께 봉사했다. 클라크 부대관장의 별세로 그는 대관장단 제 2보좌로 지지 받았고 모일 부대관장의 별세로 제1보좌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70년 까지 태너 부대관장과 함께 봉사하다가 맥케이 대관장이 별세하자 십이사도 평의회로 돌아왔다.

농부, 캐나다의 목동, 선교사, 군인, 법률가, 교수, 사업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거의 언제나, 적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기지가 있으며 헌신적인,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더 영적인 일에 민감한 여성과 함께 생활했다.

교회의 부름을 부행하기 위해 그는 아내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브라운 자매는 많은 시간을 남편과 떨어져 여러가지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와 자녀의 심한 질병을 인내로써 돌보아 주었고 남편의 이름을 딴 비행사인 장자가 2차 대전 중 북해에서 실종하여 죽은 고통을 견디어 내었다.

브리감 영과 지나 헌팅튼의 손녀이며 카드스톤 건설사의 딸인 지나 영 카드는 가문에 손색 없는 생활을 했다. 브라운 자매는 남편에 앞서 1974년 별세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만나면 적어도 일방적으로는 그녀가 12세였을 때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게 되었다. 말년에 브라운 부부가 보여준 사랑의 관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였다. 지팡이나 아들, 손자 혹은 종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교회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91세의 할아버지는 아내의 침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린 다음 앞문으로 가서 이렇게 소리친다. “여보 나야, 지금 왔어” 그리고는 노령과 질병으로 무거운 몸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 아내의 침대로 다가가 66년간 반려자였으며 또한 영원한 반려자가 될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다. *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저는 주께서 그의 종을 통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오래 전에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노력해 왔습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1951년 10월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으며 그 이후 그의 생활은 주님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크리스찬슨 장로의 봉사의 생애는 1975년 12월 2일 심장 질환에 의해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78세였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12월 4일 목요일에 거행된 장례식의 추도사를 통해 크리스찬슨 장로의 별세는 “봉사 활동으로 가득찬 생애의 종막을 고한 것”이라

고 말하면서 끊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벤슨 장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종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분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1951년 10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훌륭한 아내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자녀들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저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그와같은 도움과 주님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유타주 메이필드에서 출생했으며, 초기 교회의 유타주 개척자들의 후손이었다. 그의 부친은 농부였으며 또한 산림 경비원이었다. 그가 유타 주립 농과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인듯하다. 그는 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으므로 오랜동안 교편 생활과 학교 운영에 종사했으며 때로는 교회 학교와 신학 연구원에서 교사로서 일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결혼 직후 아내와 함께 센트럴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후 1937년에 텍사스—루이지애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4년 이상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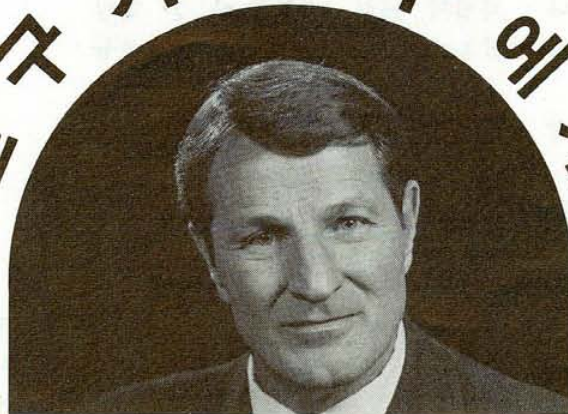
그밖에도 크리스찬슨 장로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부장단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청남 상호 향사회 회장단 등에서 봉사하였다. 1943년부터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았던 1951년까지 그는 로간 신전장으로 봉사했다. 후에 그는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면서 솔트레이크 신전장을 겸임했으며 다시 교회 신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또한 훌륭한 켈로 연주자이기도 했다. 그는 현악 합주도 했으며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적도 있다.

장례식을 주도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마지막 추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찬슨 형제는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기쁨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노동을 강조하는 복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보조

나는 헌신적인 교회 회원인 부모에게서 어려서부터 복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노동을 강조하는 복음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친은 열심히 일을 하셨으며 번 돈을 저축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쓰는 일은 없었으며 거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불평없이 일하시

는 부모님 밑에서 즐겁게 일하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 계원이셨고 어머니는 집안 일을 하셨습니다. 누나와 나도 해야 할 사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놀 시간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람에 따라 할 일과 책임이 많아졌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일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리, 닭, 양, 소, 염소 그리고 돼지가 몇 마리 있는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물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부 사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나무도 심었습니다. 우리는 밭에 물을 주기도 했고 잡초도



뽑아 주었으며 나무의 가지를 치고 열매를 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명하게도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과일과 가축을 판 돈의 일부를 갖도록 허용하셨



입니다.

당시를 돌이켜 볼 때 항상 바쁘게 일한 것이 나에게 훌륭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일의 노예보다 태만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먹여 살리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게으른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에는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낭비야말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한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법입니다.

노동을 강조하는 복음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하는 법을 배우면 보다 훌륭한 개인, 보다 훌륭한 가족원, 보다 훌륭한 이웃, 보다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사렛의 어떤 마을에 가 본 일이 있는데 그 곳에서 목수와 장석들



이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수나 장석은 보잘 것 없는 직업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은 배우셨고 그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합니

다.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뜻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도 역시 일입니다! 천국에는 게으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기를 배우면 현세에서 행복해 질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더욱 행복해 질 것입니다. 일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한 방법이니까 때문입니다. *





빵 빚어 만들기

빵 빚어 만들기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놀이이다. 빚어 만든 조그만 모양은 색칠을 하여 굳혀 놓으면 도자기처럼 보이며 단단하여 오래 간다.

빵 빚어 만들기를 하기 위하여 (빵껍질이 없는) 세 조각의 흰 빵을 흰 풀 세 숟가락으로 반죽한다. 손가락에 로손을 발라 빵이 손에 붙지 않게 한다. 반죽이 손에 붙지 않을 정도로 오래 반죽한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어떤 모양이나 만들 수 있다.

각 부분을 만든 다음, 이들을 한 데 붙여 밀착시킨다. 매끈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골고루 물과 풀을 솔질하여 바른 다음 밤새 말린다. 조각이 단단히 마르면 템페라나 아크릴로 칠한다. 원한다면 각 조각에 식용색소로 칠을 해도 좋다.

이 빚어서 만든 물건에다가 돌, 나무 껍질, 마른 풀 등 자연 물질을 결합하여 아주 특이한 소형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다.

버섯을 만들려면, 반죽으로 직경 2.5센티 되는 공을 만든다. 밑바닥을 평평히 만든 다음 뾰족한 연필 끝으로 모양을 낸다. 줄기를 만들려면 반죽을 손가락 사이에 걸쳐 1.5센티 길이의 자루를 만든다. 이 외에도 작은 벌레, 거북, 꽃, 기타 자연의 많은 작은 모형물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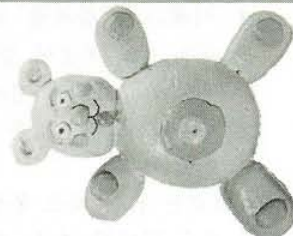
빵을 빚어 동물, 벌레, 과일, 식물 등의 모습을 한 핀, 목걸이, 귀걸이 등을 만들 수 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고리, 반지, 핀 등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무당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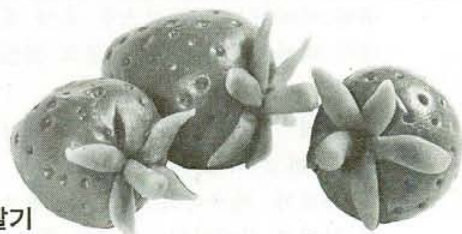
빵 반죽으로 만든

직경 2.5센티의 공의 밑면을 평평히 한 다음 무당 벌레의 모습으로 만들어 색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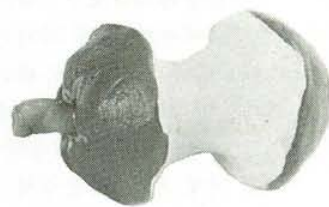
장난감 곰

2.5센티의 공을 만들어 몸체가 되게 하고 1센티의 공을 만들어 머리가 되게 한다. 조그만 공을 두개 만들어 귀로 붙이고 네개의 조그만 공을 만들어 팔 다리가 되도록 붙인다. 색칠을 하여 곰의 모습이 되도록 한다.



딸기

빵 반죽을 굴러 계란 모양으로 만든다. 이를 연필로 딸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잎을 붙이고 줄기를 단다.



사과 속

빵 반죽을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 옆을 동그랗게 파내고 손으로 만져 모양을 만든다. 사과 꼭지의 모양을 만들어 붙인다.



새

직경 2.5센티의 공을 만들어 초승달 모양으로 한 다음 한 끝은 꼬리, 다른 끝은 부리가 되게 한다. 새의 깃과 날개를 칠한다.

더 크는 삼 끝을 잔디 위에 놓고 발로 힘껏 밟았습니다. 삼으로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서 어머니의 아이리스 화단으로 뿌리를 뽑기 시작한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팔과 어깨가 아팠지만 화단이 한결 말쑥해진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더크가 토요일 아침에 일을 도와 준다면 오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더크는 흙을 파고 풀뿌리에 엉겨 붙은 흙을 털면서 에단, 릭, 체드 그리고 그밖의 친구들과 공원에서 야구놀이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늦게 와서 야구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크는 삼을 옆에 놓고 일을 끝내기 위해 갈퀴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이리스를 속아 뽑아내어 화단 한쪽에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뭣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더크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아주머니가 노란 것으로 좀 달라고 하신단다. 그리고 콕스 부인도 푸른색 아이리스 대여섯 개 달라고 하셨거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불쌍도 해라.”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불쌍하다니요?” 더크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누가 가져가서 심으면 잘 자랄텐데 그냥 던져 버리니까 불쌍하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시면서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몇해 동안 꽃을 가꿀 만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지. 이웃에서도 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해서 이제는 온 동네의 뜰이 꽃밭이 되었어.”

“허지만 빠진 데가 있어요.” 하고 더크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아이리스를 가져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집을 짓기엔 너무 좁은 공지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아무도 손질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꽃밭

루시 파

“그렇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맥카티 할아버지가 바로 그옆에 살면서 몇해 동안 잘 손질해 왔었는데 요즘은 자신의 뜰을 보살피기도 힘이 든 모양이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단다.”

더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그 공터가 눈에 거슬린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가꾸려 들지 않는걸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곳에 휴지까지 버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책임인 것 같아요. 아마 그곳에 꽃이라도 좀 피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아이러스는 빨리 떨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러스는 다른 꽃처럼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단다.”하고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물을 주겠어요.”하고 더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터 앞 보도 근처에 꽃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고 말고,”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더크야, 다른 꽃들도 심으면 좋을게다. 오후에는 나도 시간을 내어서 널 도와주마.”

점심 식사후 더크는 공터에 가서 꽃을 심기 위해 풀과 나뭇잎과 쓰레기를 긁어 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세 자루나 긁어 내어 꽃을 심을 만한 곳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마침 지나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가 왔습니다. “일을 하는군!”하고 에단이 말했습니다. “응, 일이야. 하지만 재미 있는데.”

그는 아이러스를 심는 일에 대해 설명한 후 물었습니다. “날 좀 도와 줄래?”

에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삽을 가져 올게. 이곳은 오랫동안 보기 싫은 공터였어.” 곧 에단은 삽과 갈퀴를 들고 돌아 왔습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의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메이지 꽃을 슈아 주신다고 하셨어. 울타리 바로 밑에 심으면 좋을거야. 아버지도 조금 후에 오셔서 도와 주시겠다고 하셨어.” 소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며 싱긋이 웃곤 다시 일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니카가 옆에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니카는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 공터에서

뭘 파고 굽고 하니?”

소년들은 아이러스와 메이지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곤 둘이 합창이나 하는 듯이 “우리 도와주지 않을까?”하고 물었습니다.

“이 공터는 벌써 좋아졌는데,”하고 모니카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 주고 싶어, 집에 가서 삽을 가지고 올게.”

몇분 후 모니카는 언니 안드리어와 함께 여섯개의 작약꽃을 담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에단의 메이지꽃 옆에 심기로 했습니다.

더크가 아이러스를 심을 땅을 다 파기 전에 채드가 와서 보고는 도와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갈퀴와 노란 덩굴 장미 네 그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공터의 뒷쪽에 심으면 울타리로 떨어 올라 가면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맥카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본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난 이 공터를 더 오래도록 손질하고 싶었었지.” 할아버지는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꽃을 심어 놓기만 하면 물은 내가 제공하겠다. 필요할 때마다 호스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 내면 되니까.”

더크는 맥카티 할아버지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그 많은 꽃나무에 줄 물을 어떻게 나를까 하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럿이 모여 일하니 웃고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동네 사람들이 거의 모두 나와 도와 주었습니다. 꽃나무를 가져 오는가 하면 비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꽃밭을 돌볼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 집집마다 쓰레기를 몇 상자씩 들고 집의 쓰레기통에다 버리고는 새 꽃밭을 보려고 모두 다시 나왔습니다.

“이 꽃밭은 동네 제일가는 꽃밭이 될거야.”하고 맥카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의 꽃밭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곳이지. 우리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눈에 거슬리던 곳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으니 즐거움을 주게 되었어.”

모든 사람의 꽃밭, 더크는 집으로 돌아 오며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며 아름답게 꽃밭을 가꿀 때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빠 처럼

제이 버튼



젠 조하너손은 가족이 매일 먹을 우유를 가져 오기 위해 먼지 나는 길을 따라 조그만 빨간 마차를 끌고 목장을 향해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걸어가고 있노라니 몇대의 독일 트럭이 동네를 빠져 나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젠은 멈춰 서서 트럭들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 보았습니다.

때는 1941년이었습니다. 젠의 고향인 노르웨이의 할덴에서는 독일 군인, 트럭, 총 등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생활은 계속되었고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해야 했습니다.

젠이 계속 걸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마차가 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바퀴가 또 빠졌군.”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바퀴를 집으려 마차 뒤로 돌아갔습니다. 젠은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바퀴를 마차에 달았습니다. 이미 낡아 찌그러져

있어서 얼마나 견뎌낼지 몰랐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도시의 중심가 바로 밖에 세워진 보초막이 보였습니다.

젠이 길을 가로질러 보초막을 거의 통과하려는 순간 굼직한 목소리가 들려 멈춰섰습니다.

“두 콤 말 헤어(이리 좀 와봐)!” 보초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젠은 군인이 말할 땐 잘 들어야 하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 보초 앞에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나이는 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젠을 바라 본 다음 마차를 가리키며 몸을 구부려 바퀴를 살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안되겠는데, 구부러졌어.”하고 떠들떠들 노르웨이 말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가리키며, “내가 고쳐줄까? 내일 와 봐.”하고는 젠의 머리를

톡톡치며 활짝 웃어보였습니다.

젠은 수줍은 듯이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빠 우유를 가지러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길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래 그는 노르웨이에 온 낯선 사람들에 관해 눈에 거슬리게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으며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고 누구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말이 언제나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아가 싸우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장에 나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젠 네가 집을 보살펴야 돼. 그리고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곳에 오는 외국 군인 대부분은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 그들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것이야. 그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란다. 젠아. 아빠처럼.”

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 독일 군인도 아마 의무 때문에 이곳에 왔을거야. 아빠처럼.”

다음날 아침 젠은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낙농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마차를 끌고 길 아래로 걸어 내려가 보초막 근처의 모퉁이까지 왔습니다.

젠은 마차의 끌채를 잡고 그 쪽으로 걸어 갔습니다.

“구텐 탁(안녕)”하고 군인이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왔구나. 내가 고쳐주지.” 그는 보초막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새 바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젠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일 군인은 몸을 구부려 험렁험렁한 바퀴를 빼어 내고는 반짝반짝하는 새 바퀴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더니 젠을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 번 끌고 가 봐.”

젠은 마차를 끌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조금도 험렁한 맛은 없었습니다.

“투센 타크(대단히 감사합니다.)”하고 젠은 마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전장한 군인은 다시 웃고는 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뭘, 도와 주고 싶었을 뿐이야. 독일에 너만한 아들이 있지. 너와 많이 닮았어. 이름이 뭐지?”

“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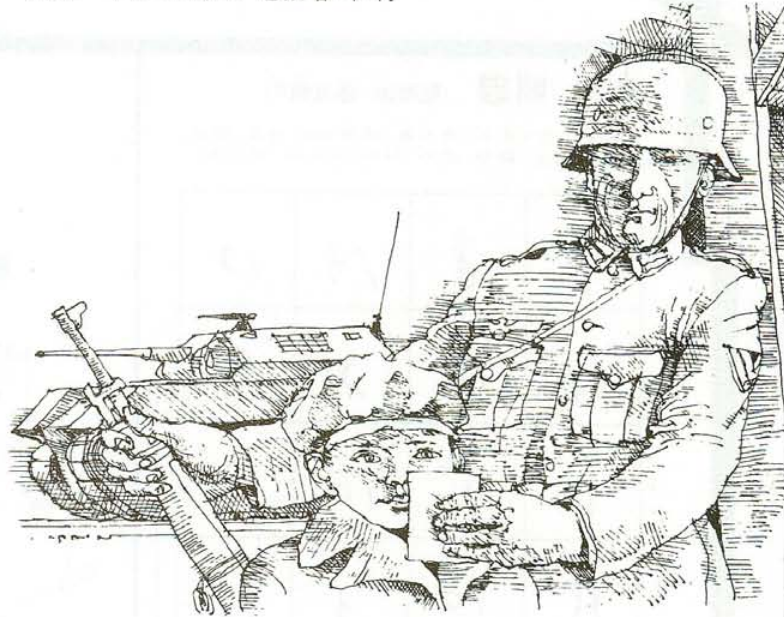
“우리 아들은 오토야. 내 이름도 오토구.”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꺼내더니 젠에게 주었습니다. 젠의 나이 또래인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얇은 금발의

머리를 짧게 깎고 축구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젠은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할거예요”하고 말했습니다.

독일 군인은 젠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니 커다란 눈물 방울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보고 싶어 하고 말고. 나도 보고 싶구나.”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젠은 한참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젠은 아빠의 말을 다시 한 번 기억했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란다, 젠아, 아빠처럼.”

젠은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오토 씨, 곧 아드님을 볼 수 있게 되실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으시다면 제가 자주 찾아 뵈겠어요.”

군인은 젠을 쳐다보더니 표정이 밝아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젠, 너는 착한 아이구나. 돌아 올 때 또 얘기하자. 난 노르웨이 말을 좀 배울 수 있겠고 넌 독일 말을 좀 배울 수 있을거야. 친하게 지내자. 또 와, 응?”

“네, 매일 오겠어요.”

젠은 기분이 흡족하여 떠났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젠, 아주 기분이 좋아보이는데”하고 올슨 아저씨는 우유를 전네 주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생일은 아닐텐데,”

“아네요.”하고 젠은 대답했습니다. “생일보다 더 기쁜걸요.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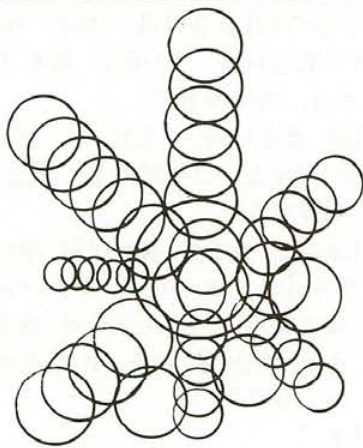


심심 풀이

수자 배열 트레보 홀로웨이

1 부터 16까지의 숫자를 배열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합한 수가 34가 되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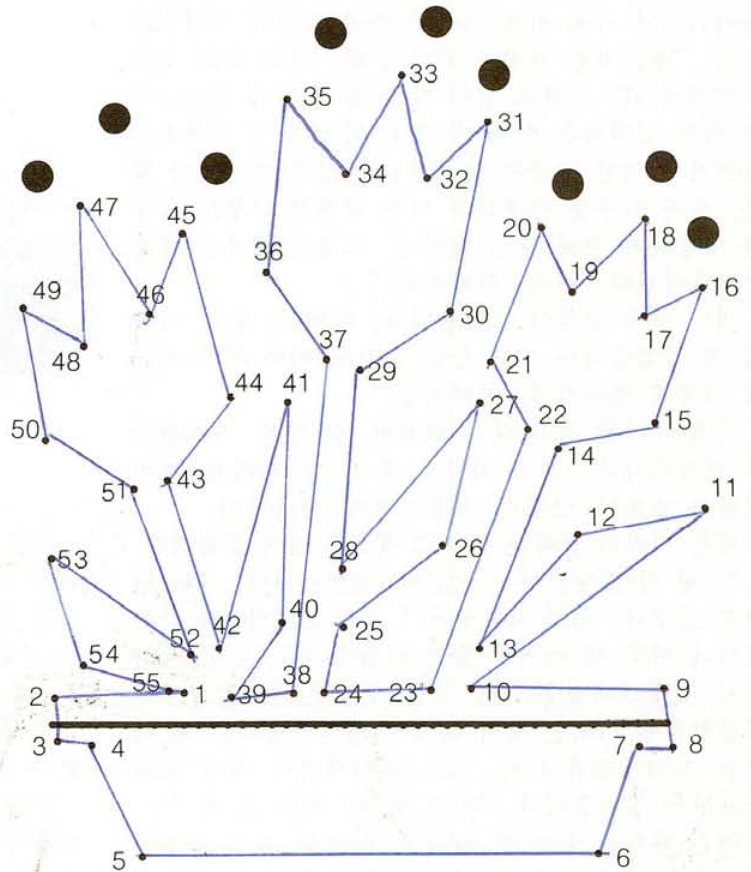
1	8	13	12
14	11	2	7
4	5	16	9
15	10	3	6



동그라미 세기

동그라미가 모두 몇개인지 알아 보세요.

점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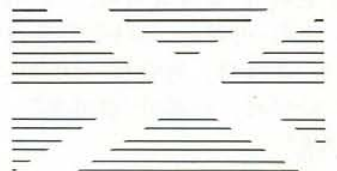
수자 배열 해답

가로 1열...1, 8, 13, 12

가로 2열...14, 11, 2, 7

가로 3열... 4, 5, 16, 9

가로 4열...15, 10, 3, 6



동그라미 세기 40개

그애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우리는 친한 친구로 함께 지내면서 자라왔던 것이다. 우리는 여느 어린 소녀들처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지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 그애는 아직 친리를 모르고 있었고,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애에게도 필요하며, 그애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일을 선교사들에게 부탁할 목적으로 그들을 찾아 갔다. 그러나 나는 편지를 받았다.

“자매님이 먼저 그 친구에게 부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애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 오늘밤 우리집에 와서 영화 보지 않을래?, 우리 와드에 새로 온 선교사가 필름을 가지고 오실거야.”하고 말했다.

친구는 왔다. 그애는 필름을 보고 나서 별 말이 없었다.

일주일 후 선교사들이 나의 집에 들렀다.

“그 친구하고 복음 공부할 시간 약속하셨습니까?”하고 그들은 물었다.

“저, 그애는 요전의 영화를 보고 별

말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볼까 말까 하는 중이에요.”

“지금 전화로 물어 보시지요”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시간 낭비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었다. 선교사의 말이라 주저하면서도 결국 다이얼을 돌렸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상스러웠다.

“체릴이니? 저말야, 저, 장로님들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저, 너 이리로 올 수 있겠니?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배우지 않을래?”하고 말했다. 한참 있더니 이윽고 대답이 들렸다.

“저, 그래, 그러지 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올 수 있니?”

“아무 때나 괜찮아”

“그럼 내일 저녁에 올래?”

“그래, 좋아.”

“나는 장로님들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내일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그들은 반가운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요”

“체릴, 고마워.” 하며 수화기를 놓으려는 순간 체릴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잠깐만, 패티 내가 선교사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하고 체릴이 말했다.

“응, 상관없어. 오기만 해.”

“허지만 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는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들의 말에 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괜찮아.”

마침내 제2단계로 들어 갔습니다.

네 번째 복음 토론을 마칠 때 까지

한 번도 논쟁이 없었습니다. 사실 체릴은 장로님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날 밤은 후임 동반자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끝날 무렵 그는 체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침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선임 동반자는 깜짝 놀랐다.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하리라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숨을 죽이느라고 애를 썼다. 잠깐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받겠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그들이 체릴에게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을 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체릴은 기도했다.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기도였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를 들고 쳐다 볼 수가 없었다. 선교사들은 조용히 떠났다.

그들이 떠나간 후 우리는 함께 울었다.

“패티”하고 체릴은 눈물어린 눈으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그녀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을 나에게 주고도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 선물이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애가 받아 들인 것이다. *

시작이 반이다

패티 윌트뱅크



교회 복지 사업 개관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범 세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 조직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성도들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른바 협동 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높은 수준의 법에 따라 생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백성들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 때까지는 이 법을 중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납의 법과 복지 사업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36년 10월에 있었던 교회 반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교회 안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칭은 후에 교회 복지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교회 복지과가 조직되어, 스테이크에게 물품 생산을 위한 연간 예산을 세우도록 지명하였고, 물품의 생산 분배를 감독했으며, 지역 생산 계획 및 감독 창고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교회 교용 센터를 감독했고, 메저넷 산업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 복지 사업 위원회 위원들이 스테이크 및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 복지의 기본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이전부터 각종 사업을 개발해 왔습니다. 1919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입양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인디안 학생에게 학교 근처

의 숙소를 제공하는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에 의해 1953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정서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을 위한 사업은 여러 해 동안 실시되어 오다가 1960년에 이르러 공식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9년, 매리온 지 롬니 장로와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의 지시에 의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1970년에 보건 사업 기구가 조직되어 교회에서 수년간 발전시켜 온 병원 체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 사업 기구는 전세계 말일성도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책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년간의 정력 기간 동안, 근본적인 면에서 복지과는 아무 변경도 없었습니다.

1973년에는 복지과, 사회 사업과, 보건 사업과 등 3개 분야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관장단은 관리 감독단으로 하여금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하도록 임명했습니다. 각과의 기능을 보다 명백히 명시하기 위해과의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복지과는 그 명칭이 복지 생산 배부과로 바뀌었으며, 알 킨 가드너 형제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과는 복지 사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많은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회 사업과는 이제 개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빅터 브라운 이세 형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과가 맡고 있는 주요 책임은 복지의 사회 정서적 측면과 직업 소개소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 복지 사업에 관련된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합법적인 기관은 여전히 말일성도 사회 사업과라 불리웁니다.

보건 사업과는 이제 개발 복지 사업과에 흡수되었습니다. 이과는 제임스 오 메이슨 형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병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과는 전 세계 성도의 보건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과의 주요 책임은 전세계의 개발 도상 지역의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이를 준비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이상의 복지 생산 배부과, 개인 복지 사업과, 개발복지 사업과 등의 세과가 복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과의 관리자인 관리 감독단과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이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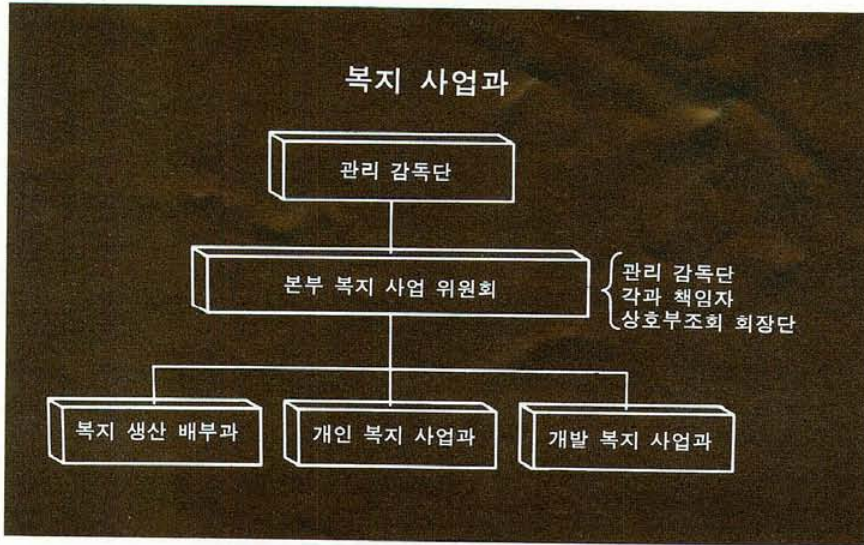
상호부조회에 관해 한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프로그램과 관련을 맺어 왔으며, 복지 사업의 범위가 상기한 바와 같이 확장됨에 따라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가 복지 사업을 훌륭하게 협조해 주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호부조회의 협조 없이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복지 사업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를 도와 각 회원과 가정으로 하여금 각자의 필요사항을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급 자족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복지 사업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회원은 헌납의 법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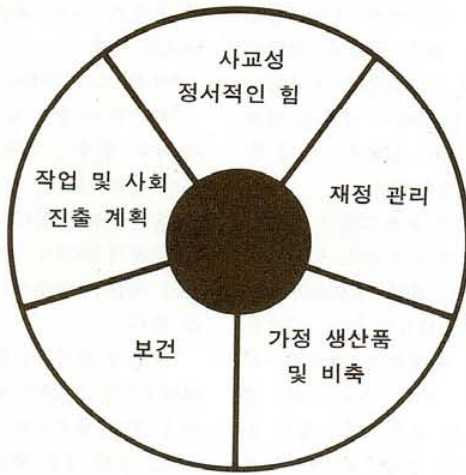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울림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 들일 수 없느니라.”(교성 105:5)

우리는 앞서간 형제들의 사업을 물려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다음의 영적인 훈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에비시키는 준비요, 기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한 예이니 이로써 너희가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가족 예비 프로그램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5 가지 계획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교서 78 : 13—14)

교회의 각 단위 조직, 즉 개인, 가정, 와드, 스테이크, 지역, 지구 등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을 조달할 준비를 갖추어 모두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개인 복지 사업

이제 개인의 복지 사업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25명의 회원이 있는 전형적인 와드를 예로 들어 그들의 개인 복지 필요 사항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교회와 정부의 믿을 만한 자료에 의거한 것입니다. 통계 수자는 미국 내의 와드의 평균치입니다. 각 와드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와드도 이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 수자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문제점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와드 내에는 금년에 교회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21명 있습니다. 즉 식량, 의복, 연료, 주거비 등등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직한 가정이 15명이나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승진이나 전직을 해야 하는 회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밖에 적어도 와드 내의 50명의 가정은 큰 빚을 지고 있어 월 지출이 수입 보다 많은

형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재정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입 지출의 예산을 적절히 세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생산품 및 비축 문제를 살펴 본다면, 와드 회원 중 1년분 이상의 식량 비축을 한 회원의 수는 불과 23명이고, 242명은 2개월분 혹은 그 이하의 식량 비축을 했으며 62명은 전혀 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에 관해서는 와드 내에 평균 1명 정도의 맹아가 있습니다. 또 4명의 어린이가 청력 장애를 갖고 있으며, 9명의 언어 장애자, 5명의 지진아, 2명의 신체 불구자, 2명의 학습 무능아가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의 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늘날 신권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정서적 분야입니다. 625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와드에서 매년 162명 정도의 회원이 이사 또는 와드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친구와 헤어지게 되거나 낯익은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한 와드에서 4명 가량의 아동은 정서적 내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3명의 자녀를 가진 두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이혼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년만 해도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파문될 것입니다. 네 명의 청소년이 교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 주부로서 가정이 아닌 69명의 여성이 가정 밖에서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알코홀과 환각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범법 및 타락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생동안 개인 복지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전형적인 와드의 개인 복지 문제를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전담하기에는 벅찬 일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전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와드 복지 사업 위원

회가 가정의 노력을 후원해 줍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워드 예비 프로그램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개인 복지 문제에 관하여 자립과 긍지를 갖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지난 4월 대회의 복지 사업 모임에서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현명하게 예비함으로써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계획을 세워 행함으로써 절박한 위기까지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복지 사업 모임, 1975년 4월 5일 5페이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가족 각 사람의 개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복지 사업에 관한 기타의 모든 부면, 예컨대 워드 예비 프로그램 등도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교회의 모든 회원과 가족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 즉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재정 관리, 가정 생산품 및 비축, 보건, 사교성/정서적인 힘 등에서 최대한의 자립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가정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예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준비된 가정의 가정은 훌륭한 직업을 가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적절하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 준비된 가정의 부모는 예산 및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 능력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하신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산품 및 비축. 준비된 가정은 법이 허용하는 한 적어도 1년분의 기본 필수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가능한 지역에서는 1년분의 생활 필수품 재배, 통조림, 재봉, 생산 등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건. 준비된 가정은 영양, 위생, 사고

예방, 구강 보건 및 구급법 등 합리적인 보건 예방의 원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건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9편에 기록된 성도의 건강에 관한 주님의 약속에 좀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교성/정서적인 힘. 준비된 가정은 의롭게 살고 복음을 공부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교성/정서적인 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은 기쁨과 슬픔, 풍요와 결핍, 성공과 실패 등 인생에서 불가피한 모든 양면적 상황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정 이 이러한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충분히 실시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말일성도 가정은 혼란 중에서 평온을 맛보며, 불안 중에서 안전을 느끼며, 궁핍 중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이나 직업적인 봉사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 복지 사업과에 관계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혼 부모 문제, 양자,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심각한 정서적 및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회원에 대한 임상 치료라든가 신권 협의 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둘째, 취업 사업입니다. 고용 문제는 오늘날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었습니다. 워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고용 문제에 조력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워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가족에게 봉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봉사합니다. 고용 문제의 도와 주는 일은 교회의 모든 복지 사업 위원회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고용과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목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목표는 오래 전부터 총관리 역원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긴급히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단지 놀라움을 주려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준비의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려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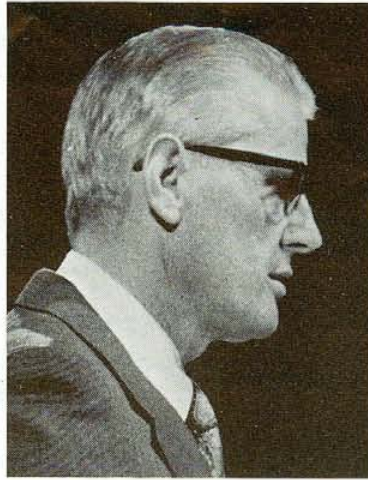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25:1-13).

형제 자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간 기름은 헌납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헌납의 범으로써만이 완전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 우리는 관리인의 직분을 갖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직분을 존중하고 그의 프로그램과 그의 방법으로 지상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복지 생산 배부과

에이치 버크 피터슨
관리 감독단 제 1 보좌



최 근의 조사에 의하면 1년간 사용할 생활 필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중전의 복지과는 복지 사업 생산 배부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복지 생산 배부과는 교회의 신권 역원, 상호부조회 지도자 및 회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 불행할 당한 자 기타 연병 등의 이유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X X X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는 복지 생산 배부과의 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이 조직이 전체적인 복지 사업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의 임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말일성도 가정에서 빈곤을 일소하여 애족이나 시온과 같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라.”(모 7:18).

말일성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은 가정 생산품입니다. 즉 통조림, 채소 재배, 재봉, 기타 가정 필수품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



는 한 1년분의 식량, 의류 및 가능하면 연료도 비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부모와 자녀가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고 장래의 사태에 대비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권 정원회를 통해 지시를 받고 어머니는 남편이나 상호부조회의 검소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습니다.

둘째, 브라운 감독이 설정하신 교회 예비 프로그램의 범주에 속하는 와드 예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적절한 생활 수단이 없는 와드 회원을 보살피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 생산 배부과의 기본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1) 와드로 하여금 준비를 갖추고 식량 및 기타 물품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일, (2) 감독이 가난한 가정에 나누어 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일, (3) 메저넷 산업 프로그램에 제언을 함으로써 와드, 스테이크, 지역 등이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실제로 회원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입니다.

이 점에 관해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유타주에 거주하는 말일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류, 과일 및 채소, 곡물, 낙농품 등 네 개의 기본 식품군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1년분의 육류 식품을 저장하고 있는 교회 회원은 약 5%정도였고, 말리거나 통조림한 과일 및 채소 1년분을 저장하고 있는 가정은 3%뿐이었으며, 1년분의 곡류를 저장한 가정은 약 18%였고, 3%의 가정이 1년분의 낙농품을 통조림 혹은 분유로 만들어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분의 식량을 저장하고 있는 교회 회원이 약 30% 되었고 나머지는 약간 혹은 전혀 저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회 회원은 매달의 문제와 미래의 경제적 시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정 생산품 및 비축에 관해서는 신권 지도자, 상호부조회 지도자 및 모든 말일성도가 반드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1년분의 식량, 의류,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마련하여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 생산에 관한 예언자의 경고를 경청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다

면 채소를 재배하고, 스스로 옷을 만들며 가정의 필수품을 생산하여 자립함으로써 앞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가꾸고 과일 나무를 심으며 통조림 도구를 구입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듣고 행하는 가정에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회원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1년분의 기본적 필수품을 비축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엔사인, 1975년 5월호, 5-6페이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이만하고 와드 예비 프로그램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이에 생산 사업이 포함됩니다.

생산 사업은 와드, 스테이크, 혹은 지역

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활동입니다. 생산 사업의 목적은 교회의 가난한 회원에게 식량과 기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돌봐 주는데 있습니다. 농장, 과수원, 낙농장, 목장, 방목장 운영, 통조림 공장, 제과소 등 식품 사업, 그리고 용단 제조, 수예, 가구 제조, 재봉 공장 등 비식품 사업 등은 소위 “무상”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증하고 있는 이 때에 도움을 받는 회원들이 자신의 긍지를 잃지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사업은 또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더욱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능력을 헌신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1940년대에는 교회 복지 생산 사업 기구가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대폭적인 통합 정리를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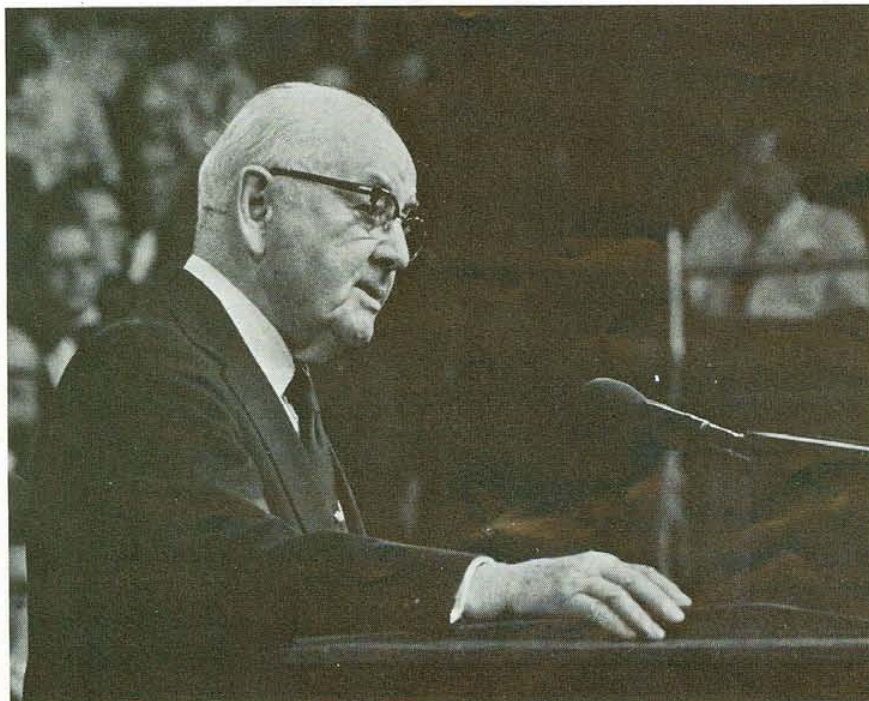
니다. 최근 신권 지도자들 간에 모든 와드가 복지 생산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감에 따라 교회 복지 사업의 수가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67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경작 면적도 사업의 수와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총 생산지의 면적은 58,000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권고에 따라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서는 물품 창고가 있는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 줄 정도의 식량 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비 수준에서 보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우리의 식량 생산 사업이 도움을 요하는 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가정은 가정 생산 및 비축 계획을 실시하는 가족 예비 프로그램으로 자

1975년 10월 4일 복지 모임에서의 대관장님의 감사와 격려의 말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두 세 가지 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둘째,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보다 많이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갖가지의 도움을 적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대신 우리들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복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와드나 지부나 스테이크가 있다면, 어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지역으로 가서 이 위대한 복지 사업을 수행해 나갈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림해야 합니다. 워드 예비 프로그램이라 함은 워드가 워드, 스테이크 또는 복합 스테이크 생산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자립할 수 없는 회원을 뒤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워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세계 워드의 수는 약 5,000개가 됩니다. 이들 워드의 54%만이 워드, 스테이크, 혹은 지역 단위의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워드가 생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독이나 신권 지도자의 커다란 목표입니다.

생산 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는 현재의 소비 수준에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교회는 더 많은 생산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워드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교회는 모든 가정 및 교회 단위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지난 몇년동안 금식 현금의 총액은 매년 전년도에 비해 15% 가량 증가되어 왔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상응하여 1975년에 들어와 8개월 동안의 금식 현금 총액은 평년보다 47% 증가되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은 자신의 단위 조직에서의 증가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모든 회원들이 전보다 몇배의 금식 현금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바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금식 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함으로써 절약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일곱 배라도 현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필름스트림 : 복지 사업의 원칙, “...스스로의 길”)

금식 현금과 일용품 생산 예산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일용품과 연료를 비축하여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1년분의 일용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의 증가에 따라 비축된 일용품은 급속히 고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 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껏 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능력껏 일하지 않는 가정을 돕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자들은 품위와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과 노력에 의해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점을 확고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능력껏 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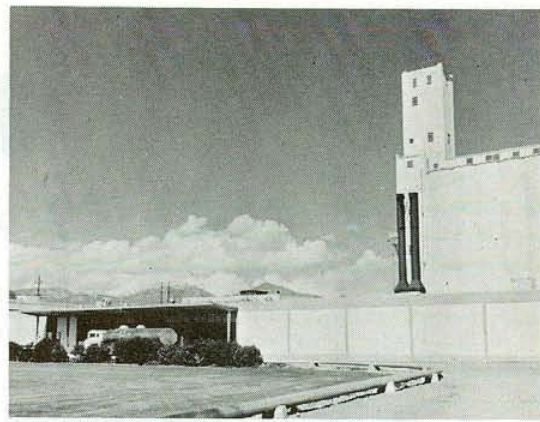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가정의 25%만이 도움의 대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가정의 적어도 75%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복지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도움을 받는 가정의 25%는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신권 지도자의 창조적이며 영감을 받는 노력에 의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힘은 주께서 마련하신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을 때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도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부 제도에 관해 요약하여 말한다면, 교회는 일정한 정도의 비축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감독 창고의 수와 이용도를 증대시키고 도움을 받는 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게 감독이나 신권 지도자가 조직을 취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저렛 산업에서는 현재 13개의 단위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저렛 산업의 주요 목표는 신체 장애자나 연로한 형제 자매에게 명예로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테저렛 산업에서는 개인의 노동 능력에 알맞는 노동량을 제공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평온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테저렛 산업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일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테저렛 산업의 현재 계획은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단위 조직을 설립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 생산적인 외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램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테저렛 산업은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 주는” 일을 합니다. 능력있는 회원은 누구나 그곳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시고, 이 산업에 기부하셔서 테저렛 산업 프로그램이 그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지 생산 배부과의 사명과 관련된 활동 중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워드 예비 프로그램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 조직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 불행한 자, 노인, 어린이 기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식량과 기타의 일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했으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개발 복지 사업과

본 제이 페더스톤
— 관리 감독단 제 2 보좌 —



최 근에 조직된 복지 사업의 부서인 개발 복지 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지 사업의 사명을 증진시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 교회의 개발 도상에 있는 지역에서 복지 사업에 관하여 가르치고 실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되는 지역 거주 회원이 가족 및 와드 예비 프로그램의 축복을 받게 한다.

2. 개발 도상 지역의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 보전 선교사, 농업 선교사 및 기타 복지 사업 선교사를 보낸다.

관리 감독단은 복지 사업을 “땅 끝까지” 확장시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1972년 4월 9일 빅터 엘 브라운 감독과 그의 보좌를 성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복지 조직을 확장할 책임은 형제님들에게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세계 도처에 새로 생기는 모든 스테이크에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님의 계획을 충실히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가

장 큰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발 도상 지역의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가급적 속히 그리고 질서있게 가족 및 와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의 세계 각처의 신권 지도자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리 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에 의해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훈련과 똑같은 세심하고 깊이 있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신권 지도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교회는 제시된 원리에 합당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도상의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는 악을 피하는 방법, 금식 현금 기금의 남용을 막는 방법, 일시적 동기에서 칩레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은 복지 사업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 지침서는 16개 국어로 번역되어 배부되었거나 번역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 사업에 관한 감독단 훈련 자료가 번역되어 배부되었습니다.

총관리 역원과 복지 사업 요원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지 사업 원칙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와 기타 교회 교과 과정 자료를 통하여 복지 사업의 원리가 가르쳐 집니다.

전 세계에 파견되는 보전 선교사 및

농업 선교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단 2명의 보전 선교사가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272명의 보전 선교사 및 농업 선교사가 34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자신이 헌신함으로써 커다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보전 선교사였던 블레어 바이비 박사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에서 귀환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욱 도와 주셨고 더욱 축복하셨으며 의문에 대한 더욱 많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목표를 주셨으며 선교사로서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 생애의 어느 때 보다는 훌륭한 일을 더욱 많이 성취했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더 이상 의술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저의 모든 대학교 시절, 의과 대학 시절 및 인턴 시절은 제가 보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길 없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비 박사의 간증은 복지 사업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분들의 강한 느낌과 영성을 나타내 줍니다.

가족 및 와드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칩레반은 어느 어머니는 영양 실조와 미숙한 보살핌으로 첫아기를 잃었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개종한 후 그녀는 가족을 적절히 보살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큰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물었습니다. “건강한 물몬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는 상호부조회에서 마련한 육아에 관한 특별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 공과에 열의를 보였고 배운 원리를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 과정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준 보건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름 받은 그 지역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교사 생활을 마쳤지만 여전히 보건 전문가로서 지부 복지 사업 위원회를 통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건 선교사의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3개월 된 아기가 설사로 거의 죽어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영양의 중요성을 배우고 물을 끓이고 식기와 우유병을 청결히 하는 법을 배워 적용한 결과 아기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점점 살이 오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가족은 아버지를 주축으로 하여 우물을 파고 습지에 고인 물을 빼며 채소밭을 가꾸고 집을 수선하는 등의 가족 사업을 벌여 생활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하였습니다.”

한 자랑스런 아버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을 가족들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시설은 신권 복지 사업 계획의 일부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지부의 거의 모든 가정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생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회원에게 진료소 등의 적절한 지역 보건 기구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보건 선교사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를 도와 회원으로 하여금 이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심한 병에 걸렸

을 때만 의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회원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지부에서는 지부 건물 근처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여 채소밭을 가꾸는 농업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가 지부 회원의 심한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 토지는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참여하여 밭을 갈아 채소를 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회원들은 훌륭한 농업 기술과 토양의 습기와 영양에 관해 배우고 적용하여 종전의 산출량보다 몇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발육 부진과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단백질 결핍증을 없애기 위해, 어떤 지역의 성도들은 메주 콩, 돼지, 닭, 토끼, 기타 다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원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업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귀환한 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상의 것은 교회의 개발 도상의 지역에서 크게 실시되고 있는 복지 사업 원리의 몇개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이제 보건 선교 사업에 있어서 시도 상당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농사 방법은 날로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과 경제적 향

상을 위한 우리의 사업은 훌륭한 첫발을 내디딜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 뿐만 아니라 선교부장과 기타 지역 신권 지도자의 부름을 받은 지역 전문가와 동반자들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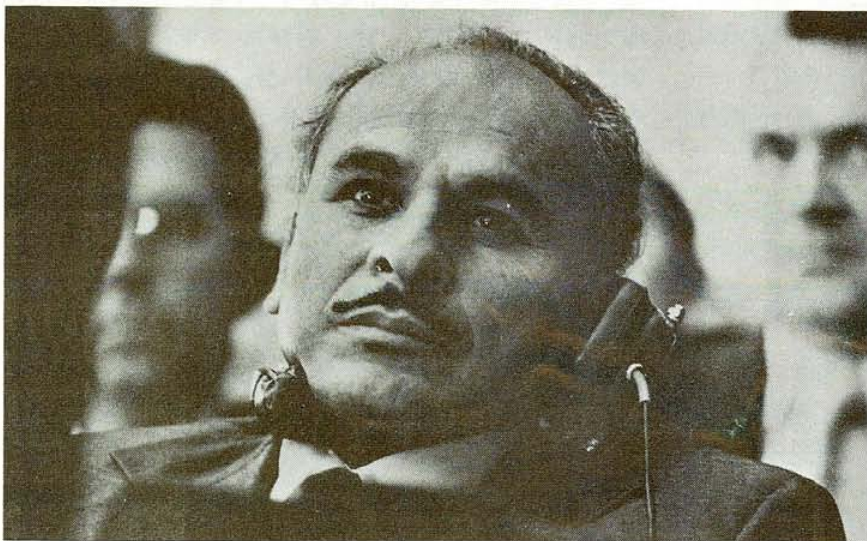
복지 사업 선교사는 의사, 간호원, 영양사, 사업가, 농업 전문가와 그밖의 사람들을 복음 선교사에게 소개하여 복음 공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또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훌륭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이 자립하여 남을 도와 줌으로써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업,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재정 관리, 보건 기타 관련 직업에 경험이 있거나 가르칠 재능을 갖고 있는 부부 회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신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스테이크나 와드에 자녀를 다 키워 놓고 외국에 나아가 보건 및 농업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부 회원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계적으로 걸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는 건강하고 씩씩하며 열의가 있는 회원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973년 4월 7일에 있었던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하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대관장단은 복지 사업을 관리하는 새로운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리 감독인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복지 사업이 보다 체계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며, 많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아감으로써 주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또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서울 선교부장 제2보좌 전 종철

옛 그제 마약 시작한 것 같은 올해도 어느 사이에 우리 모두를 일년의 반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일생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못느끼는 바도 아니기는 하지만 실로 아쉬움과 후회를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후회를 몇번 거듭하다 보면 할 일을 많이 남겨놓은 채로 육신을 벗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세월이 빠르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난 성도의 벗 1월호에 실린 던 장로님의 “충실한 일꾼”에 소개된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사모아에서 아무 말없이 부지런히 일하던 선교사들, 혹은 선교부장으로 혹은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이역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 정말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맛보았으나 이에 실망하거나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부름을 초연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뿌린 희생의 대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어느 형제로부터 동경 신전 건립을 위한 모금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할당 금액을 자기의 수입만으로는 현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내도 직장을 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자매가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복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옳은 것이냐, 원하면 자매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니 얼마나 좋으냐는 이야기 이전에 우리는 그들 충실한 말일성도 부부가 갖고 있는

참다운 희생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느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는 초기의 성도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힝클리 장로님은 희생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의 희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의 생명을, 모든 재산을 희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와 이유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십일조의 법, 지혜의 말씀, 금식의 법, 교회 모임에의 참석, 가정의 밤, 가정 복음 교육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교회의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재산의 여유가 있을 때 정직한 헌금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봉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초대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은 1829년 늦은 봄 펜실바니아주, 하모니 부근의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님은 이 중요한 사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마시리니,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곧 내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확인하게 하였고,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내가 저들에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열쇠를 지니게 한 자들이니라.

“나는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나의 왕국의 열쇠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맡겼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충만한 때를 위한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27:12, 13)